

# 광주·전남 노년부양비 20년 전비 두배 이상↑

### 호남통계청 사회지표 통계자료...고령·기대수명 증가속 출생아 감소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광주·전남지역 노년부양비가 20년 전보다 각각 두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지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 광주·전남지역 노년부양비는 각각 16.1명과 32.6명으로 20년 전인 지난 1995년 6.5명, 15.8명보다 9.6명과 16.8명이 증가했다.

노년부양비는 생산 가능 인구(15세~64세 미만) 100명이 부양해야 할 노년 인구의 수를 의미한다.

고령인구와 기대수명은 증가하고 있으나 출생아 수가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2016년 고령인구는 1995년 대비 광주는 200.2%, 전남은 70.0% 증가했다.

2014년 기준 기대수명도 광주 81.4세, 전남 81.2세로 2006년 대비

각각 3.1세와 3.8세가 늘어났다.

반면 2016년 출생아 수는 광주 1만1580명, 전남 1만3980명으로 1995년 대비 광주는 49.4%, 전남은 50.4% 각각 감소했다.

특히 광주의 2016년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인구는 광주 147만7000명, 전남 179만9000명으로 1995년 대비 광주는 17.6% 증가했으나 전남은 14.8% 감소했다.

순유출 인구는 2016년 기준 광주 7898명, 전남 3206명으로 20~30세 미만이 가장 많았다.

2016년 인구 1000명당 혼인율을 광주가 남자 12.3건, 여자 12.0건이며 전남은 남자 10.4건, 여자 9.5건으로 1995년 대비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이혼율은 광주가 남자 4.6건, 여자 4.8건이고, 전남은 남자

4.8건, 여자 4.0건으로 20년 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2016년 고용률은 광주 58.0%, 전남 61.6%로 2007년 대비 광주는 1.5%포인트 상승했으나, 전남은 2.0%포인트 하락했다.

2015년 기준 자동차등록대수는 광주 61만대, 전남 90만대이며,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건수는 광주 556.2건, 전남 530.0건으로 조사됐다.

대중교통 이용 인원은 광주의 경우 평일과 주말 모두 증가하고 있으나 전남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기준 일 생활패기물 배출량은 광주 11.2t, 전남 16.7t으로 2005년보다 광주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전남은 증가하고 있다.

## 롯데백 광주점, 설 선물세트 사전 예약판매 시작

### 내달 21일까지 청과·정육 등 최대 70% 할인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 1층 식품관에서는 2018년 설 명절 선물세트 사전 예약판매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민족 최대의 명절 설(18년 2월 16일)을 맞아 50여일 앞두고 2018년 1월 21일까지 26일간 '설 선물세트 사전 예약 판매'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판매 기간에는 총 120여

개 품목을 최대 70% 할인 판매할 예정이다.

주요 상품군의 할인율은 축산물 10~20%, 수산 10~20%, 가공식품·생필품 10~30%, 와인 40~70%, 건강식품 30~70% 할인

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이번 사전 예약판매 행사에서 10만원 이하의 실속형 상품 비중도 늘렸다.

10만원 이하 실속형 상품 비중은 기존 47%에서 62%로 15%증가시켜 진행한다.

이는 지난 11일 국민권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일부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선물은 농·축·수산물에 한해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상향 조정 통과되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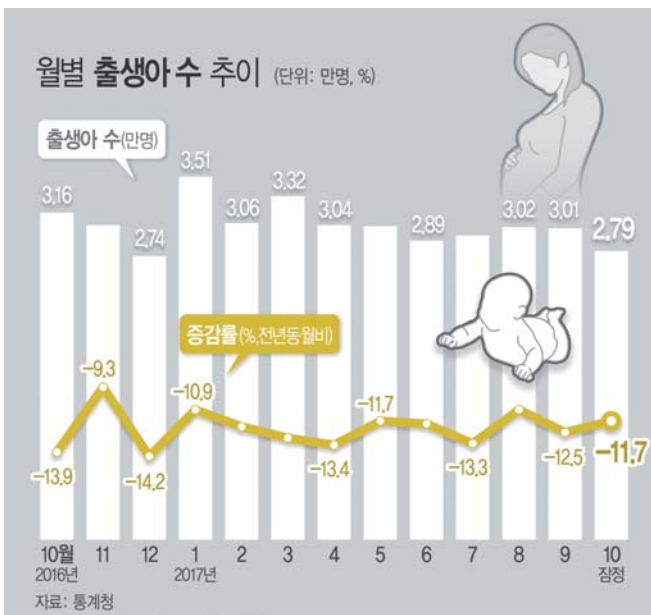
이밖에 백화점 측은 설 대목 특수를 선점하기 위해 법인기업체 및 단체 주문 고객의 상담을 위해 별도의 선물상담 7/24팀도 구성하여 상담 활동에도 돌입할 계획이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양도원 식품 Floor장은 "이번에 발표된 10만원 이하의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상한액 조정으로 상품 선물 매출 비중이 한결 높아져 매출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서은홍 기자

## 출생아수, 10월 기준 역대 최소...석달만에 다시 2만명대로

### 23개월 연속 감소...올해 누계 30만6천명 사상 최소



올 들어 10월까지 태어난 아이 수는 30만6000명으로 1년 전(34만8500명)보다 12.2%(4만2500명) 줄었다. 누계 기준으로도 역대 최소다.

현 추세대로라면 올해 출생아 수는 30만명 초반대에 그칠 전망이다. 연간 출생아 수가 30만명대로 떨어진 적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두 번째로 크다.

출생아 수는 2015년 11월 1년 전보다 3.4% 증가한 것을 마지막으로 23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한 것은 지난해 12월(-14.2%)부터 11개월째다.

또한 2만명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 7월(2만9400명) 이후 석 달 만이다. 지난해 12월(2만7400명) 처음 2만명대로 급감하고선 3만명 수준으로 겨우 회복했지만 반 년만인 올 6월(2만18900명) 다시 2만명대로 주저앉아 7월까지 두 달 연속 수치가 개선되지 않았다.

그러나 혼인 건수는 발생을 기준으로 하는 출생·사망과 달리 신고일수로 집계되는데다 10월 긴 추석 연휴(1~9일)까지 겹친 영향이라는 게 통계청 측 분석이다.

이처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신고일수를 고려하지 않아 10월 혼인 건수의 낙폭이 커보이는 것"이라며 "신고일수 감소를 감안하면 1년 전보다 1.0%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10월 이혼 건수는 8400건으로 1년 전보다 5.6%(500건) 감소했다. 혼인과 마찬가지로 신고일수 감소 영향이다. 올 들어 10월까지 누적으로는 8만18100건을 기록했다.

올해 10월 출생아 수가 석달 만에 다시 2만명대로 떨어지며 월간 기준 역대 최소 기록을 또 갱신했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10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2만7900명으로 1년 전보다 11.7%(3700명) 감소했다.

10월 기준으로 출생아 수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 이

## 직장인 31% "가상화폐 투자"...평균 투자액 566만원

직장인 10명 중 3명은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투자금액은 566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직장인 941명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투자 열풍'에 대해 조사

능해서 (47.8%), '장기적으로 가치가 상승 할 것 같아서' (30.8%), '투자 방법이 쉬워서' (25.4%) 등의 응답이 있었다. '현실 탈출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해서 (14.6%)와 같은 이유도 나왔다.

평균 투자금액은 566만원이었다.

그렇다고 답한 이들이 80.3%에 달했다. '월급유지'는 13.2%, '손실을 봤다'는 6.4%에 그쳤다.

투자 이익은 '약 10%' (21.1%)가 가장 많았으나 가상화폐 시세의 가파른 상승세로 '100% 이상' (19.4%) 이익을 본 응답자도 상당했다.

이러 '약 20% 이익' (16.5%), '약 30% 이익' (12.2%), '약 50% 이익' (11.8%), '약 90% 이익' (7.0%) 등이었다.

가상화폐 투자로 인해 생긴 증거나 습관으로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을 자주 확인한다' (39.7%)가 1위였다. '업무 집중도가 떨어진다' (27.5%), '수익률에 따라 감정 기복이 심하다' (22.4%)가 그 뒤를 이었다.

그밖에 '커뮤니티에 민감해졌다' (14.2%), '24시간 거래 확인을 위해 집을 거의 못 잔다' (11.9%), '수익 이상의 돈을 투자금액으로 활용한다' (10.8%) 등의 응답도 나왔다.

한편 현재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지 않은 이들은 '지금이라도 투자 의향이 있는냐'는 질문에 72%가 '여전히 투자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뉴스시

### '사람인' 941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투자이유 54% "고수익 얻을 가장 빠른 방법" 응답자 80.3% "가상화폐 투자로 이익 봤다"

한 결과 응답자의 31.3%가 비트코인 등과 같은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다고 답했다.

투자 이유로는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어서 54.2%(복수응답)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이러 '적은 자본으로 투자가 가능해서' (47.8%), '장기적으로 가치가 상승 할 것 같아서' (30.8%), '투자 방법이 쉬워서' (25.4%) 등의 응답이 있었다.

'현실 탈출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해서 (14.6%)와 같은 이유도 나왔다.

평균 투자금액은 566만원이었다.

세부적으로는 '100만원 미만' (44.1%)이 가장 많았고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8.3%),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2.9%),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9.8%),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7.8%) 등이 뒤를 이었다.

투자로 이익을 봤느냐는 질문에는

지역구관·미케팅조·정문직필

**湖南新聞**

전남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